



본회 '95년도 정기총회 오는 24일 개최

이사회는 2월 10일에

본회 '95년도 정기총회가 오는 2월 24일 (금) 오후 2시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94주요사업실적보고 및 예산집행 결산보고, '95주요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에 이어 당면현안에 대한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95년도 제1차 이사회는 오는 2월 10일 12시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를 위한 종축 시장접근물량 운영지침 시달

농림수산부는 지난 13일부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

수산부 고시 제94-76호)에 의거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를 위한 종축 시장접근물량 운영지침을 본회에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다.

종축(종계) 시장접근물량 운영지침

1. 연도별 시장접근물량

	H·S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종 계	0105.11.1000 0105.91.1000	천수 461	461	461	461	461	461	461	461	461	461

2. 수입신고, 양허관세추천 및 규격확인 기관

- 종계 : 대한양계협회

3. 시장접근물량 배정

- 회계년도 개시전에 실수요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요량 조사('95년도는 1월까지)
- 정액 등 처리업체, 국·공립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실수요자의 사육기반 등을 참작하여 배정

4. 추진방법

실수요자에게 공고·홍보→배정신청서 접수→배정→신청자에게 배정량 통보→실수요자는 종축이 국내도착시 관리기관에 수입신고→관리기관은 종축의 규격확인→규격적합 및 배정된 종축에 대하여 규격확인서 및 양허관세추천서 발급→실수요자는 세관에 규격확인서 및 양허관세추천서 제출→통관

5. 기타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마련하여 운영
-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 7조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이 증량될 경우 동물량은 별도 통보

-본지침에 의한 동일 관리

- '94년 추천이월된 물량은 업계와 협의하여 '95년도 시장접근물량에 포함여부를 결정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부고시 제94-76호, '94.12.31)”에 의함

양계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고시

종계·조란은 본회, 닭고기는 축협중앙회가 수입대행업체로 선정

닭고기 수입이 앞으로 축협산하 축산물유통사업단이 공매를 하게되고 종계·조란(전란액)은 본회로 이관 수입이 이루어 진다.

닭고기는 입찰에 의해 킬터량을 배정받아 축협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으면 수입업자는 총 7,700톤의 범위내에서 20%의 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액란은 본회회장의 추천만 받으면 11,709.5톤 범위 내에서 30%의 관세로 수입할 수 있으며 종계도 461천수에 한해 본회회장에게 추천물량을 배정받아 종계를 수입한 후 종계수입신고서를 필한 다음 추천서를 제출하면 무관세(0%)로 수입이 허용된다.

양계산물의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사용용도 및 추천대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표.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사용용도 및 추천대행기관

품목 구분	H·S	품 명	사용 용도	수입 관리 방식	양허관세 추천 대행기관
종 계	0105-11-1000 0105-91-1000	닭(185g 이하/종계) 닭(185g 이상/종계)	종축용	실수요자 추천	대 한 양계협회
닭고기	0207-21-0000 0207-41-1000	닭고기(미절단/생동) 닭고기(절단/간장제외/생동)	일반내수용 외화획득용 계통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추천	축 협 중앙 회 "
조 란	0408-99-0000	조란(껍질 붙지 않은 것/건조한 것 이외) *닭의 것	일반내수용 외화획득용 원료	실수요자 추천 "	대 한 양계협회 "

종계·조란(전란액)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확정 공고

축산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종계·조란의 수입신고 등에 관한 권한이 농림수산부 축영 51530-21('95. 1.13)로 본회에 위탁됨에 따라 종계·조란(전란액)의 시장접근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이 확정 공고되었다.

종계·종란수입 및 관리요령을 살펴보면 UR협상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의해 관세가 면제되는 종계물량(1995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461천수)은 1월25일까지 협회장에게 양허관세 추천물량 배정신청을 해야하며 협회에서 구성된 종계·종란수입 조절위원회가 1월말까지 실수요자에게 배정하게된다.

위원회는 실수요자, 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로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수입계종은 본회에서 시행하는 닭경제능력검정을 받아 그 성적이 인정된 것으로 수출국 또는 수출육종회사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가 첨부된 계종이어야 하며 가족전염예방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거 가금류의 수입금지 조치를 받지 않은 나라에서 사육 또는 생산된 계종이어야다.

실수요자가 종계 또는 종란을 수입하였을 때는 검역시행장에 도착 즉시 종계·종란 수입신고서, 거래은행장이 발급한 수입승인서, 수출국 또는 수출육종 회사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 선하증권 사본, 수입대행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수입계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실수요자는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통관수속을하면 된다.

조란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
관리 세부요령은 본문 178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규격기준 고시

본회는 축산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규격기준이 농림수산
부 고시 제1995-2호('95. 1.11)로 고시됨에
따라 그중 종계, 종란의 수입기준을 발췌하여
관련 부화장에 시달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가. 종계 및 종란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에서 시행하는 닭경제
능력검정을 받아 그 성적이 인정된 계종으로써 수
출국 또는 수출육종회사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가
첨부된 것.

○수입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단,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의 닭경제능력검정을 받고자 수입하
는 종란은 계종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산란계 : 하이라인 백색, 하이라인 갈색, 이사
브라운, 바브콕, 닉칙백색, 세이버스타크로스 579,
데칼브와렌, 하이섹스갈색, 로만백색, 로만갈색, 아
바에이카브라운, 와렌엑셀, 사이로, 데칼브브라운,
바브콕B-300, 바브콕B-380, 테트라하코, 테트라
SL, 보반스브라운, 브라운 닉

—육용계 : 하이브로, 인디안리버, 하바드, 아바에
이카, 로스, 코브, 피터슨, 블랙탬플, 베데트, 세이
버스타브로, 로만, 에이비안, 타툼, 세이버 레드브
로, 싸쏘 431, 싸쏘 551, 하이와이, 케이스 팜

나. 기타

○상기계종외에 기준 고시 이후 사단법인 대한
양계협회의 닭경제능력검정을 받아 성적이 인정된
계종에 대하여는 대한양계협회의 확인을 받아 수
입할 수 있음.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농림수산부고시 제1994-16호('94. 3. 5)는 폐
지한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이중시세 문제점 제기



1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박승봉)가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료가격 인상의 조짐이 보
이고 난가가 지역에 따라 고시가격에서 6원이
하까지 DC가 되는 등 이중시세가 형성됨에 따
라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으며 1회용 종이
난좌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인은 물론 생
산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국계우회연합회 개최

심준식, 천강균씨 난가조절위원으로 결
정

전국계우회연합회(회장 최준구)가 지난 5



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중시세로 유통에 차질을 빚고 있는 난가고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개선이 있었다.

- 회 장 : 최준구(유임)
- 부회장 겸 난가조절위원 : 심준식(유임),
천강균(신임)
- 감 사 : 박동원(유임), 김남옥(신임)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중원농장 2월부터 종계수출



1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가 지난 11월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육계의 경우 금년 3, 4월부터 채란의 경우 금년 중반부터 병아리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불황이 올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그 대책으로 종란을 식난으로 처분하거나 병아리 감축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종계, 부화장에서 노계도태 시기를 엄수하면서 생산수를 조절해 가는 것이 최선책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사료값 인상조짐에 따라 종란생산비가 올라가 자칫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소비, 유통쪽에 신경을 써야함을 강조했다.

한편 중원농장에서는 국제화에 발맞춰 2월 3일부터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84,000수의 종계를 말레이시아에 수출계약하였다고 밝혔다.

종계수입농장 대표자회의 개최 수입조절위원 18명 구성



종계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및 수입관리 요령이 공고됨에 따라 수입의 효율성을 기하고

자 마련된 종계수입농장 대표자회의가 지난 11월 본회 회의실에서 종계수입 실수요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계수입 및 관리요령을 설명하고 수입되어지는 종계 461천수에 한해 본회회장에게 추천물량을 배정받아 종계를 무관세로 들여오게 따라 실수요자, 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계, 종란 수입조절위원 18명을 선정하였다.

종계 · 종란 수입조절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농장(직장)명 및 직위	적 요
실수 요자	배성환	삼화농원 대표	로스 원종계 한국 총판
	배선재	중원농장 대표	에이비안 원종계 한국 총판
	박수남	복지농장 대표	로만 종계 한국 총판
	차상협	한일농원 대표	아바에이카 원종계, 이사브라운 종계 한국 총판
	유병현	미원마니커 사무	마니커, 마니나 국산종계 생산농장, 베대트 종계 수입농장
	김영환	광천농장 대표	하이라인 원종계 한국 총판
	윤용구	동남농원 대표	닉칙 종계 한국 총판
	신홍종	고창양계 대표	와렌 원종계 한국 총판
	송인환	성진부화장 대표	테트라 종계 한국 총판
	이민혁	신기농장 대표	하바드 원종계 한국 총판
	김홍국	하림 대표	코브 원종계 한국 총판
	김인식	체리부로 대표	싸소 종계 한국 총판
	소 계	12명	
업계	김교석	우화농장 대표	본회 부회장 겸 종계분과위원장
	민균홍	충청농장 대표	
	이광초	경인축산 대표	
소 계	3명		
학계	오봉국	서울대 명예교수	
	박근식	수의과학연구소	
	최연호	신구전문대 교수	
소 계	3명		
합 계	18명		

'95년도 시무식 거행



본회는 지난 1월3일 오전10시 본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거행했다.

이자리에서 최준구 회장은 신년훈시를 통해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양계업의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협회를 구심점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양계업 경영진단에 관한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최진호연구소에서 주최하고 본회 및 농림수산부에서 후원하는 “양계업 경영진단에 관한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가 오는 2월17일(금) 오전 10시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양계 사양가들과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본회 최준구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WTO시대의 농업의 변화와 우리

의 대응자세”란 주제로 허신행 전농림수산부장관이, “양계장 방역과 수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오경록 남덕세니테크 대표가, “양계장 경영에 있어서 기록의 중요성”을 주제로 양기원 호리에계원 대표의 발표가 각각 있을 예정이며 최진호 박사의 진행으로 공청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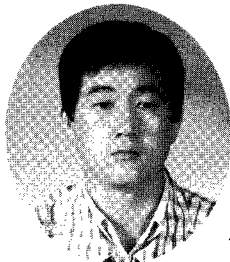
본회 '94년도 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사 실시

본회는 지난 1월25일 정관 제16조에 의거 '94년도 사업실적보고서, 재산목록, 예산집행결산서 및 미수 미불금 내역표의 각 항에 걸쳐 감사(위원 : 안승식, 엄재국)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보고는 오는 24일 정기총회때 발표할 예정이다.

본회 임원개선

동두천 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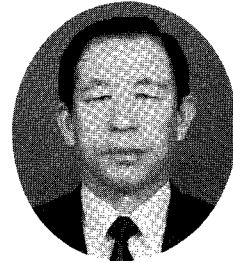
- 회 장 : 송복근
- 부회장 : 손배창, 김남억
- 총 무 : 박경서
- 고 문 : 이원기, 최영식
- 감 사 : 김형모, 강명근



◁ 송복근

평택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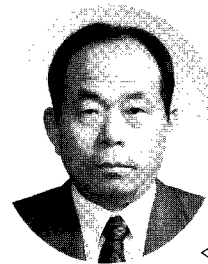
- 회 장 : 전상열
- 총 무 : 조용욱
- 감 사 : 이우삼



◁ 전상열

이천채란분회

- 회 장 : 오무남
- 부회장 : 전병훈, 정인혁
- 총 무 : 니영대
- 감 사 : 김주홍, 김문수



◁ 오무남

위생적인 양계산물 생산,
국제 경쟁력 강화시킨다